



## 조희대는 물러나라

내란 가담 혐의 대법원장 인정 못한다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국정감사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하며 사실상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들었지만, 국정감사는 권력분립의 원리 안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정당한 통제 절차다. 국민은 재판 내용 자체가 아니라 최소한의 설명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한다. 그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는 곧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조희대에게는 내란 가담 의혹까지 제기되어 있다.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전에 사법권마저 계엄군에 넘기려 했다는 정황이 여러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며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된다. 윤석열에게 사법권을 갖다 바치더니 내란 청산 국면에선 사법권 뒤에 숨는 조희대의 행보는 비겁함을 넘어서 추악하다.

나아가 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법원 내규까지 무시하며, 2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 만에 그 결과를 뒤집어 파기환송한 전례가 있다. (진실을 알고 있을 것임에도 이 황당한 사태를 방관 방치하는 대법관들과 침묵하는 일선 판사들도 도긴개긴이 아닌가 한다.)

이쯤되면 조희대의 '아닌 척', '모르는 척'은 내란을 단죄하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정감사 출석 거부는 그 확증이 된다.

성경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말하지만(로마서 13장), 그 권위는 진실과 공의를 위해 사용될 때에만 정당하다.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파괴한 내란의 책임이 드리워져 있고, 21대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권까지 짓밟으려 한 사상 최악의 사법부 수장 조희대는 마땅히 물러나야 하며, 동시에 내란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결국 사법부의 권위는 스스로 쌓아 올린 신뢰 위에서만 존속한다. 조희대와 사법부 구성원들이 이를 외면한다면 그는 법과 평등, 민주주의의 원칙을 배반할 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소명에서도 벗어난 자가 된다. 그 끝은 국민의 심판을 넘어 하나님의 심판 즉 종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고양신문 우리교회 소개하다

고양의 대표적 지역신문 '고양신문'이 최신후에서 우리 교회를 "진보 목소리 품고 고양에 동지 튼 '벙커1교회'"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사 링크는 교우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2025년 10월 19일  
통권 13권 32호  
창조절 7주일

2025년 벙커1교회 표어  
**κόσμος 코스모스**  
세상 질서 조화(요한 3:16)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흐르게 하여라.

**벙커1교회 주제성구 아모스 5:24**

### 섬기는 사람들

목사 김용민 · 장로 민에스더  
전도사 오광석 최새론 이용수

### 교회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화랑로546번길 16-12)

010-9341-2012

bunker1churchweb@gmail.com

bunker1.me

**누룩TV**

**벙커1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소속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애쓰고 있는 개혁적 개신교회입니다.

창립기념일 2012년 6월 10일



새 교우 등록을 원하는 분은 좌측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95:2 (개역개정)

찬양팀

인도 오광석 전도사

## ■ 찬양

보컬 이난주 집사·김자경 교우·이혜정 집사·이진영 집사·김성운 집사  
김경순 집사

연주 정진호 집사·박이정 교우·이용수 전도사·장옥상 집사·이종원 집사  
(가사는 모니터 또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 ■ 징 울리며 묵상하기

정방남 원로

## ■ 신앙고백

일어서서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 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 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 ■ 찬송

복음성가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 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 ■ 기도

이상훈A 집사

## ■ 성경봉독

데살로니가전서 5:17~21

5:14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5:15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5:16 항상 기뻐하십시오.

5: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5: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5:19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5:20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5:21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5:22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5:23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광 훈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 김용민 목사 감사는 기회주의를 쫓아낸다

### ■ 설교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조건부 감사, 즉 상황이 좋을 때만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각한 박해와 종말론적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소문 때문에 일상의 삶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두려움과 회의 속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형편과 조건을 뛰어넘어,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을 지켜 내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감사는 무엇보다도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행위입니다. 현실은 고통스럽고 상황은 흔들려도, 감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를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감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묶이지 않고, 오늘 주어진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나아가 감사는 신자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관되게 살도록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신자가 종말의 공포와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자주 제기되는 불만과 비판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비판을 감사를 부정하는 태도로 오해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사회적 불의와 부패를 거침없이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비판은 냉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실히 살 아내려는 신앙적 순종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비판은 감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토대로 더 나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책임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감사 없는 비판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게 하여 결국 냉소와 분열로 흐릅니다. 반대로 비판 없는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자기 위안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비판이 함께할 때, 교회는 은혜를 더욱 선명히 인식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변화를 추구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 회의나 소그룹 모임에서 먼저 감사 제목을 나눈 뒤 개선점을 이야기한다면, 비판은 원망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건설적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상황논리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붙드는 나침반이고, 비판은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는 책임입니다. 감사와 비판이 함께할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먼저 감사의 자리에서 굳게 서고, 그 감사 위에 성숙한 비판과 책임의 삶을 세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닦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 ■ 광고

사회자

### ■ 파송곡

일어서서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 ■ 축도

김용민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

벙커업 (어린이) 1층 우리지금만나룸 사무엘상 17:45~51 다윗의 승리, 서울의 번민 오광석 전도사	벙커틴 (청소년) 미디어공간대어 느헤미야서 2:9~20 느헤미야의 비밀작전 최새론 전도사
---	---

**수요예배** 수 오후 7시 📺

찬양	감사해
본문	욥기 21장
설교	헌된 위로는 거짓과 기만이다 김용민 목사

**새벽성서읽기** 월~금 오전 5시 📺

월	출애굽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다
화	출애굽기 2장 요게벳의 노래
수	사무엘상 6장 경외하며, 가까이
목	마태복음 3:1~17 요한의 세례
금	마태복음 4:1~11 광야에서의 시험

(월·화) 김용민 목사 (수) 최새론 전도사  
(목·금) 오광석 전도사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일꾼**

주일 박민호 PD · 수요일 김시현 PD · 새벽성서읽기 박종욱 집사

**벙커1교회**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방법

지하철 3호선 삼성역 ③번 출구  
→ 도보 1.9km  
마을버스 삼성역 ③번  
→ 075A탑승 (DMC역 방향)  
용현마을사거리 하차  
시내버스 1·4호선 서울역③번  
3호선-GTX A 연신내③번  
→ 703탑승 (탄현역 방향)  
→ 동산고등학교 하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사용해 온 가장 강력한 도구, 기도와 명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로서의 기도, 그리고 불교의 깨달음으로서의 명상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벙커1교회** 계좌

헌금 신한은행 100-033-864027  
특수목적 신한은행 100-035-696724

# 교회소식



지난주 인천 강화에서 있었던 청년부 수련회 당시.

주일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과 새 신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상훈 A(시주)님과 정성원(우미)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대상 비폭력대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올해 전교인 대상 비폭력대화가 있습니다. 교인 의무 수강인 만큼 모두 참여하기 바랍니다. (강사 : 박지호 갈등전환센터장)

**성탄절 연합성가대** 12월 25일 오후 성탄절 당일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서울북노회 교회들의 연합 성가대 공연이 있습니다. 다음 연습은 26일 오후 3시 한빛교회입니다.

**양미혜 장로 취임식** 양미혜 집사의 장로 취임식을 노회 보고 후인 11월 23일(주일) 오후 4시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신학대학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 현금 동참 바람**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교인의 책무입니다.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모두 현금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극배우인 구재숙 집사의 공연 '소송광'이 24일(금) 오후 7시30분, 25일(토) 오후 4시 영등포아트홀에서 있습니다. 교우들을 위한 티켓 구매는 아래 큐알코드로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100-033-864027 **벙커1교회**

10월 교회 십일조 옥바라지선교회	10월 안내 1여교우회	지난주 현금액 2,870,004원
-----------------------	-----------------	-----------------------